

노인전용 유료요양원 첫 설립

치료를 받으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생겨 소득수준에 따라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노년을 앞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다.

수원 '충효의집' 다음달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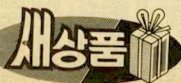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의사·간호사·간병인들의 보살핌 속에서 지낼 수 있는 노인전용 유료 요양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에 자리잡은 노인요양시설 '충효의 집'은 양로원시설 외에 한·양방치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 전문진료 시설까지 갖추고 4월 중순 공식 개원한다.

"유료 양로원이라도 몸이 불편해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설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병든 노인을 집에서 돌보기가 점점 힘들어져 자식이나 부모 양쪽에서 모두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이사장 신남옥씨는 밝힌다.

이곳에는 벌써 5명의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간호사·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심한 중풍에 걸렸던 60대 할아버지, 골다공증에 걸린 팔순 할머니, 약간의 신경정신질환을 앓았던 할머니들이다. 88살의 한 할머니는 "젊은애들이 호호백발이라서 싫어한다"며 나이 70이 넘으면서부터는 까만 머리의 가발을 뽕뽕 쓰고 혼자 아파트에서만 살다 우울증에 걸렸다.

"이제 가발도 벗고 간호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보냅니다."



다." 이곳에 온 뒤 할머니의 우울증도 많이 없어졌다고 직원들은 귀띔해준다.

이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자녀들이 간호하느라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제대로 치료받고 같은 처지의 친구들에게서 위안받으며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간병인을 쓰면서 병원에 입원해 엄청난 치료비를 쓰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다.

백운산 기슭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잡은 이 '충효의 집'은 5천평의 터에 연건평 1천6백평의 3층 붉은벽돌 건물로 89명의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인실은 6.5평, 2인실은 11.5평이다. 치료시설 외에 영안실이



한·양방치료실·입원실등 갖추고 간병인 상주 상근 한의사 확보 계획...비용부담 큰것이 흠

마련돼 있어 장례식도 치를 수 있다.

현재 간호인력은 간호사 1명과 간병인 1명, 사회복지사 1명뿐이지만 앞으로 은퇴한 한의사 1명을 상근하도록 하고 간호사 3명·물리치료사·영양사도 보강할 예정이다.

이 곳에서 숙식하면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 서운순(27)씨는 "현재는 혈압·체중·당뇨 상태를 체크하고 함께 산책하고 노는 정도"라면서 "앞으로 물리

치료실 등을 활용, 장기 치료대책도 세울 계획"이라고 밝힌다.

고혈압·중풍·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환자는 모두 받을 예정이지만 노인성 치매 등 심한 정신질환 환자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을 위한 유료 양로원의 수가 경기도 수원시 '유당마을', 경남 양산군 '혜성원'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노인병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도 거의 없어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거의 버림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병 전문병원은 '사랑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인병원' 외에 오는 10월 성심의료재단에서 서울 영등포에 서울 '한국노인보건의료센터' 등이 고작이다.

'충효의 집' 이용 비용은 사용하는 방 크기에 따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40만원,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40만원 두가지다. 그러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만원 정도는 돼야 현상유지가 가능하

다는 것이 시설쪽의 주장이고 보면 가난한 노인들은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 소장은 "모든 노인들이 염가로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층을 위한 이런 요양시설부터라도 하나하나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미경 기자〉